

## 아이러니 단서 번역: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와 「고자쟁이 심장」\*

한 미 애  
(동국대, 서울)

### 1. 서론

번역의 주요 목적이 원본의 의미를 번역본 독자에게 전하는 것(Hassan 2011: 4)이라면, 문학번역의 주요 목적은 문학텍스트의 의미를 번역본 독자에게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명제 의미나 표현적 의미뿐 아니라 맥락을 통해 추론하는 화용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러니(irony)는 말하는 의미와 의도하는 의미가 대조를 이루므로 의도하는 의미를 알려면 맥락을 통해 추론해야 한다. 아이러니는 “뜻하는 의미와 겉으로 표현한 말이 다름을 통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문학적, 언어적 문체 장치다”(이종오 2014: 454). 아이러니의 한 예는 불행한 일을 겪은 후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아이러니는 도치법, 축소법 등의 언어적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미론적 아이러니라고도 부른다”(이종오 2014: 454).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290).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생각한 문맥적 정보를 청자가 활용한다는 관련성(relevance) 원리에 따라, 청자는 화자가 원래 의도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Gutt 2000: 174).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원본과 번역본의 의사소통 맥락이 달라지므로 “원본에 나타난 아이러니한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146). 아이러니는 대조되는 두 가지 층위의 의미나 아이러니 단서를 포착해야 하므로 번역하기 쉽지 않다.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는 아이러니 문체를 번역하는 것이다”(Ghazala 2007: 22). 언어적 아이러니 등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울 수 있지만, 수사적 아이러니나 다른 아이러니 단서는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아이러니 이외의 아이러니 단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학에서는 아이러니를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구조적) 아이러니, 극적인 아이러니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이러니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관과 현실의 상반 또는 부조화”(Muecke 1970: 30)이다. 외관상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반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는 “해석의 색다른 지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해석이나 이론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종오 2014: 455). 문학작품과 연관된 문학번역에서도 아이러니의 번역 현상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러니 단서와 번역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The Black Cat”(1843)과 “The Tell-tale Heart”(1843)에 나타난 아이러니 단서를 세 종류의 영역분과 비교 분석하고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해석적 닻을 기반으로 아이러니 번역을 논의할 것이다.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는 “괴이하게 보이는 현상과 이상 심리의 근원을 해명하는 데 특징이 있”으며(장갑상 1983: 796), “인간을 기형적으로 회화화하는 일종의 풍자소설”(김정민 2015: 371)이다. 두 작품은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아이러니 단서를 사용해서 분석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본 논의를 위해 2장에서는 아이러니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선행 연구를 간략히 훑어보고 관련성 이론에서 언급하는 해석적 닻에 대해서 정리한다. 3장에서는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서 사용된 아이러니의 단서 즉 전치문과 도치문, 수사적 아이러니 중 완서법과 곡언법, 반복법 등의 개념 및 예시를 살펴본다. 이 단서들이 두 텍스트에서 어떻게 대조를 이루며 아이러니 효과를 내는지 줄거리와 함께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 단서들의 번역 양상을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은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 한계와 의의를 밝힐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아이러니 번역 선행 연구

하티프와 메이슨(Hatim and Mason 1990)은 원천텍스트의 명제 의미만 충실하게 반영하여 번역하면 원천텍스트에서 의도한 아이러니의 의미를 목표 텍스트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한다. 모네바(Moneva 2001)는 아이러니의 의미를 명시화하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지나치게 명시화하면 아이러니의 효과를 망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목표텍스트에서 아이러니의 명시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린더(Linder 2001)는 레이먼드 찬들러(Raymond Chandler)의 소설 『빅 슬립』(The Big Sleep)에서 아이러니 효과와 관련된 두 핵심 어휘에 주목한다. 원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cute’, ‘giggle’은 스페인어 번역본에서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아 소설의 극적인 효과가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가잘라(Ghazala 2007)는 아이러니를 번역하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번역 절차를 제안한다. 원문에 나타난 아이러니를 파악하기, 아이러니의 문학적 사회적 정치적 함의 등을 이해하기, 대조나 역설과 관련 있는 어휘를 파악하기, 원문의 느낌표나 물음표를 고려하기, 문화 문학 정치 등의 함의를 고려하여 번역어에서 아이러니 문체를 찾기 등이다. 차카치로(Chakhachiro 2011)는 아이러니의 장치에 수사적 장치와 비수사적(non-rhetorical) 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내재적으로 담론의 구조적 전개에 기여한다고 밝힌다. 바아이(Baaii 2015)는 문학텍스트에서 아이러니 번역의 복잡성은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내

재적 요소는 아이러니의 유형과 문화적 요소이고 외재적 요소는 번역가가 아이러니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와 관련되어 있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서 아이러니에 관한 연구는 각각 한 편씩 있다. 한미애(2015)는 풍자소설 <치숙>과 <<태평천하>>에서 사용된 아이러니의 번역 양상을 영역본과 대조 분석하였다. 아이러니는 언어적 아이러니(반어법), 격식성, 구어체 서술 등의 장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두 장치가 소홀히 번역되면 아이러니 요소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풍자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태훈과 최희섭(2018)은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언어적 아이러니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지나친 오역이나 변조는 없었지만 언어적 아이러니는 잘 살리지 못했는데, 이는 가독성 높은 번역전략을 선택하면서 아이러니에 대한 번역전략은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아이러니가 외관과 현실의 대조라는 본질을 살려 논리적 서술과 비논리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대조와 수사적 아이러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2.2 관련성 이론과 의사소통의 단서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 나타난 아이러니가 번역텍스트의 아이러니와 해석적으로 닮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련성(relevance) 이론과 의사소통의 단서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다.

구트(Gutt 1998, 2000)는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95)이 제시한 의사소통 이론을 번역에 적용하였다. 번역은 원천텍스트의 저자, 번역가, 목표텍스트의 독자가 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퍼버와 윌슨의 관련성 이론은 그라이스의 의사소통 원칙을 반박하고 보완한 것이다. 그라이스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네 가지 격률(maxims) 즉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방법의 격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스퍼버와 윌슨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 가지 격률이 아닌 딱 한 가지 격률 즉, 관련성의 격률만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라이스 이론에서 화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지만 관련성의 이론에서는 거짓말에도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퍼버와 윌슨(1995: 339)은 언어적 아이러니에 대해 화자의 태도를 암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화자가 ‘소풍 가기에 딱 좋은 날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 아니라 화자의 빈정거림을 표현한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며, 청자는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 중에서 그 대화에 가장 관련 있는 것, 즉 충분한 인지 효과(adequate cognitive effect)가 있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인지 효과를 얻는데도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정보는 그만큼 관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관련성은 충분한 인지 효과와 더불어 최소한의 노력이 결합한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추론(inference) 능력이다. 즉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정보적 의도를 추론해냄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과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원저자의 정보적 의도를 성공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추론적으로 결합한 문맥적 정보 안에서 의미를 해석한다(Gutt 1998: 41). 즉 번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번역가는 저자가 의도한 문맥을 적절히 활용하여 추론해야 한다.

구트(Gutt 2000: 134)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가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서는 텍스트 해석에 중요하다. 특징적 의사소통의 단서는 약한 함축을 이루며 약한 함축들이 모여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을 이룬다. 문체적 특징을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원본을 더욱 정확하게 표상(representation)하기 때문이다. 즉 문체적 속성을 보전하게 되면 커뮤니케이터가 의도한 해석으로 독자를 안내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가 의사소통의 단서이다. 예를 들면 *The DEALER stole the money*에서 DEALER은 강조를 위해 모두 대문자로 쓰였다. 이 대문자가 바로 의사소통의 단서이다. 번역은 의사소통의 단서를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원본의 의사소통 단서를 보존하는 번역은 독자가 원본의 의도된 해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단서는 정보 내용을 반영할 뿐 아니라 표현 방식과 표현 방식에서 야기되는 특수 효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서를 보존하는 것은 아주 적합하다.

### 3. 아이러니의 단서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 나타난 아이러니 단서 즉 전치문과 도치문, 완서법과 곡언법, 반복법 등에 대한 개념 및 예시를 항목별로 제시하겠다. 그다음 이 단서들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며 아이러니 효과를 내는지 텍스트별로 줄거리와 함께 살펴보겠다.

#### 3.1 전치문과 도치문

영어에서 전치는 어떤 구성성분이 앞으로 이동된 후 주어-동사의 표준 어순을 지키는 현상이고, 도치는 어떤 성분이 앞으로 이동한 후 동사-주어로 어순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박원경 2003: 37). 전치문과 도치문에서 앞으로 나온 요소는 주제 즉 구정보이거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이다. 전치문과 도치문은 이전 담화와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전치문과 달리 도치문은 구정보 뿐 아니라 어휘를 강조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어휘를 앞으로 보낸다는 점이다(53). 전치와 도치는 문장 앞에 있는 구정보를 이전 문장에 연결함으로써 담화의 응집력(coherence)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41). 따라서 전치문과 도치문은 서술자가 하는 이야기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텍스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bject there was none.’(“The Tell-tale Heart”)는 목적어 ‘object’가 문장 앞으로 나오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지 않은 전치문이다. ‘From my infancy I was noted for the docility and humanity of my disposition.’(“The Black Cat”)는 시간부사구 ‘from my infancy’가 문두에 놓인 전치문이다. 베이커(Baker 1992: 132)에 따르면, 영어에서 시간부사나 장소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뒤에 오므로, 전치된 부사는 강조의 효과가 난다. ‘Mad indeed would I be to expect it’, ‘mad am I not — and very surely do I not dream’(“The Black Cat”)은 형용사 ‘mad’가 문장 앞으로 나오고 주어와 동사 어순이 바뀐 도치문이다.

#### 3.2 완서법과 곡언법

완서법(meiosis)과 곡언법(litotes)은 억제된 표현으로 도리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수사법(Sperber and Wilson 1995: 238)이다. 이 두 수사법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건들은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므로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게 된다. 말과 상황이 대조를 이룸으로써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The Black Cat”의 서두에 서술자는 ‘homely narrative’, ‘series of mere household events’라며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사라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완서법에 해당한다. “The Black Cat”은 결코 평범한 가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서법은 전경화된 문체 장치(Zimmerman 2005: 44)로 활용될 수 있다. 곡언법은 부정어 not이나 no를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의미를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아이러니한 수사법이다. “The Black Cat”에서는 ‘in speaking of intelligence, my wife, who at heart was not a little… witches in disguise… I mention the matter at all for no better reason than that it happens’ 등으로 나타나 있다. 서술자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로 둔갑한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조금도 믿지 않은 것(not a little)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사실을 우연히(no better reason) 생각난 것처럼 대조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The Tell-tale Heart”에서도 완서법이 나타난다. *Literary Devices* 사전(2020)에 따르면, 완서법은 중요한 사항을 중요하지 않은 듯 경시함으로써 오히려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극적인 효과를 낸다. 서술자는 함께 사는 노인을 사랑했고 그 노인은 서술자에게 잘못하거나 모욕을 준 적도 없으며 노인의 돈이 탐난 것도 아닌데도 노인을 살해했다고 고백한다. 살해 동기는 단지 노인의 눈 때문이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살인 행위가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듯 언급하는데, 이러한 수사법은 중대한 어떠한 일을 완화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아이러니의 일종이다.

### 3.3 반복법과 구두점

반복법은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무언가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반복법을 통해 서술자의 강렬한 감정과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 반복법은 특히 “The Tell-tale Heart”에서 많이 나타난다. ‘나’는 노인의 시체를 방바닥에 숨긴 후 경찰들의 방문을 받게 된다. 태연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여 경찰들의 의심을

받지 않지만, 방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심장 소리에 불안함을 느낀다. 더욱 격해진 심장 소리 때문에 결국 경찰들에게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 이때 감정이 점점 고조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강박적으로 어휘를 반복한다. 반복법은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앞 문장에서 끝나는 단어를 다음 문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첩어법(epizeuxis)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nervous — very, very dreadfully nervous I had been’에서 보면, 앞 문장의 ‘nervous’가 대시 이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I moved it slowly — very, very slowly’에서도 앞 문장이 slowly로 끝났고 대시 이후에 다시 ‘slowly’가 반복되었다. 이런 동일한 양상은 ‘I resolved to open a little — a very, very little crevice in the lantern.’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세 문장에서 보면 very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은 반복법뿐 아니라 구두점으로도 표현된다.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서는 이탤릭체, 대문자, 대시, 느낌표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구두점 사용으로 등장인물의 광적인 불안을 표현할 수 있다.

### 3.4 대조를 이루는 아이러니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는 포가 1843년에 발표한 1인칭 단편소설이다. 두 작품은 아이러니한 기법을 통해 풍자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작품에서 활용된 아이러니는 “주인공이 이성적 언어를 활용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것”(Zimmerman 2005: 33-34)이다. 즉, 독자는 1인칭 서술자의 이성적인 논증 기법과 비이성적인 행동 간의 모순을 통해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The Black Cat”의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이 절대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서술자는 논리적으로 변명하는 듯 보이지만, 감정이 점점 격렬해지며 정신분열 증적인 미친 행동을 한다. 키우던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내고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모순된 요소를 병립함으로써 창출된다. 독자들은 ‘나’로 등장하는 인물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나’의 행동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서술자의 논리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은 전치(fronting)와 도치(inversion)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이성적인 행동과 격렬한 감정은 과도한 구두점 사용과 반복법 등으로 나타난다.

“The Tell-tale Heart”의 1인칭 서술자도 “The Black Cat”의 서술자처럼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 관계를 논리적 산문으로”(장갑상 1983: 802) 자신의 이상 심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서술자는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다만 예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인을 살해하는 미친 행동을 한다. 즉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과 미친 행동이 대조를 이루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포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문체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구성되어 있다...또한 포의 이야기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여져”(Goode 1987: 121) 있는데, 전치문과 도치문이 이러한 역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이성적인 광적인 행동에는 과장된 어투와 강박적으로 어휘를 반복하는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반복법뿐만 아니라 이탤릭체, 대문자, 대시 등의 구두점을 과하게 많이 사용하여 서술자의 격앙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 4. 아이러니의 단서 번역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서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활용한 의사소통의 단서는 전치와 도치, 완서법과 곡언법, 반복법과 과도한 구두점 사용 등이다. 우선 정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음, 의사소통의 단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항목별로 ST와 TT를 대조 분석하며 번역이 해석적으로 닮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TT1은 전승희(2013)가 번역한 텍스트이고, TT2는 김정민(2015), TT3는 권진아(2018)가 번역한 텍스트이다.

##### 4.1 분석 결과

1843년에 출간된 포의 두 작품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대문자나 대시, 이탤릭체 등의 구두점이 여러 번 수정되었다. 원서를 어떤 개정판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구두점 번역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구두점은 정량적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The Black Cat”과 번역본 세 종류의 아이러니 단서를 분석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The Black Cat”의 아이러니 단서

구분	ST	TT1(2013)	TT2(2015)	TT3(2018)
전치문	40	24	27	30
도치문	9	3	4	3
완서/꼭언법	10	4	3	6
반복법	15	7	7	10

“The Black Cat”에 나타난 전치문의 경우, ST는 40회인데 비해, TT1은 24회, TT2는 27회, TT3는 30회이다. 도치문의 경우, ST는 9회이며, TT1은 3회, TT2는 4회, TT3는 3회이다(이와 관련된 예문은 부록 참조). 전치문에 비해 도치문의 번역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영어의 도치문은 형용사가 앞으로 도치시키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 문장에서는 통사적으로 형용사만 앞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치의 기능이 강조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부사 등을 이용해서 형용사를 강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아이러니를 “번역할 때 통사 변화가 미묘하게만 일어나더라도, 의도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상실할 수 있”(Gutt 2000: 146)으므로, 다른 형태로라도 아이러니 단서를 보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표현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하는 완서법과 꼭언법의 경우에 ST는 10회인데, TT1은 4회, TT2는 3회, TT3는 6회다. ST는 완화해서 표현하거나 부정어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TT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복법의 경우, ST에서는 반복법을 15회 사용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TT1과 TT2에서는 7회, TT3에서는 10회에서만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반복되는 부사 ‘very, very’를 그대로 ‘아주, 아주’로 번역하면 한국어가 다소 어색하고 표현이 과도하게 느껴지므로,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위해 부사 반복을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Tell-tale Heart”와 번역본 세 종류의 아이러니 단서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The Tell-tale Heart”의 아이러니 단서

구분	ST	TT1(2013)	TT2(2015)	TT3(2018)
전치문	17	5	9	15
도치문	2	1	1	2
완서/곡언법	4	3	3	4
반복법	31	17	20	20

“The Tell-tale Heart”에 나타난 전치문의 경우, ST는 17회인데 비해 TT1은 5회, TT2는 9회, TT3는 15회이다. 도치문의 경우, ST는 2회이며, TT1과 TT2는 1회, TT3는 2회이다. 완서법과 곡언법의 경우에 ST는 4회인데, TT1과 TT2는 각각 3회, TT3는 4회이다. 전치문과 도치문, 완서법과 곡언법 번역의 경우 “The Black Cat”의 TT와 비교해보면 “The Tell-tale Heart”의 TT에 더 잘 반영이 되었다. 반복법은 “The Tell-tale Heart”에서 많이 나타난다. ST에서는 반복법을 31회 사용하여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TT1은 17회, TT2와 TT3에서는 20회만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 부사를 생략하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통시적 분석이 연구목적은 아니지만, <표 1>과 <표 2>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최근의 번역일수록 ST의 장치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목표 독자의 해석적 닻은 우선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을 번역가가 선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Shen and Fang 2019: 328). 아이러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의도한 의미가 다르므로,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번역할 경우 작가가 선택한 언어적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 이야기는 주제나 플롯 때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언어적 힘 때문”(Stauffer 1996: 466)이라는 언급처럼 전치와 도치, 완곡법과 곡언법, 반복법 등의 수사법은 포 이야기의 힘이다. 대화에서 목소리 톤이나 표정 등이 의사소통의 단서가 될 수 있듯이, 소설 텍스트에서 전치와 도치, 반복적인 표현 등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하는 단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아이러니 단서의 번역 양상을 항목별로 살펴보자.

## 4.2 전치문과 도치문의 번역

(예 1)의 ①은 전치문이다. 영어에서는 긴 구나 절을 뒤에 쓰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구가 앞으로 전치되어 있다. 이러한 전치가 이루어진 이유는 ‘가장 괴이하면서 가장 평범한 이야기’가 이 단편소설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주제나 구정보는 문장 앞에 놓아야 독자가 이야기를 잘 인지할 수 있다. 전치문 ①의 번역을 살펴보면 TT1은 ‘내가 이제 써 나갈 이야기는 너무나도 괴이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TT2는 ‘지금 내가 쓰려는 이야기는 가장 난폭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 TT3은 ‘이제부터 쓰려는, 완전히 미친 소리 같지만 가정사에 불과한 이야기’이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치문이 세 번역본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우므로 전치된 구문이 어색하지 않다.

(예 1)

ST: ① For the most wild, yet most homely narrative which I am about to pen, I neither expect nor solicit belief. ② Mad indeed would I be to expect it, in a case where my very senses reject their own evidence. Yet, ③ mad am I not — and very surely do I not dream. (“The Black Cat”)

TT1: 내가 이제 써 나갈 이야기는 너무나도 괴이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나는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의 감각들조차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증거를 거부하는데, 남들이 그것을 믿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정신 나간 일이라. 하지만 난 분명 미친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은 고양이』)

TT2: 지금 내가 쓰려는 이야기는 가장 난폭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믿어 달라고 기대하지도 간청하지도 않겠다. 내 오관마저도 자명한 사실을 부인하려는 마당에 남들에게 믿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틀림없이 미친 짓일 게다. 하지만 난 미치지도 않았고 분명히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 (『검은 고양이』)

TT3: 이제부터 쓰려는, 완전히 미친 소리 같지만 가정사에 불과한 이야기에 대해 나는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믿어달라는 호소도 하지 않는다. 내 감각들조차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난 미친 것도 아니고 망상에 빠진 것도 절대 아니다. (『검은 고양이』)

(예 1)의 ②와 ③은 도치문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데, 이 강조는 현실과 외관의 대조를 이루는 아이러니의 효과상 중요한 단서이다. 즉 서술자는 미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미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자신은 제정신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그의 광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포의 의도적인 기교와 정교한 아이러니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Kim 1990: 585). ② ‘Mad indeed would I be to expect it’의 경우, ‘mad’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도치시켰고,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 ‘indeed’라는 부사를 사용하였다. 결국 ‘mad’를 두 번 강조하는 셈이다. 하지만 번역본에서는 각기 한 번씩 강조하고 있다. TT1은 ‘실로 정신 나간 일이라’로 번역하였다. ‘실로’는 indeed에 해당하는 번역이므로 mad가 강조되지 않았다. TT2는 ‘틀림없이 미친 짓일 게다’로 번역하였다. ‘틀림없이’는 mad를 강조한 번역이므로 indeed에 해당하는 번역이 없는 셈이다. TT3은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나.’로 번역하여 강조가 한 번 이루어졌다. 한국어는 통사적으로 형용사만 앞으로 도치되지 못하지만, 서술자의 과도한 감정적 표현을 위해서 ‘틀림없이’, ‘정말로’, ‘진짜’ 등과 같은 부사를 넣어줄 수 있다. 부사를 중복해서 넣어주어야 서술자의 과도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단서를 보존할 수 있다. 부사 하나가 빠져서 아이러니 효과가 크게 줄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단서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러니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 단서는 한두 개의 형태로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차례 나타난다. 따라서 아이러니 단서를 얼마만큼 번역본에 반영했느냐에 따라 아이러니 효과가 작거나 커질 수 있다.

③ “mad am I not — and very surely do I not dream.”에서도 ‘mad’와 ‘very surely’가 각각 강조되었는데, TT에서는 모두 한 쪽만 강조되었다. 부사를 여러 번 사용하면 문장이 다소 어색할 수 있기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TT는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긴 하지만 서술자의 격렬한 감정이 조금 약화하여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술자의 과장된 표현 즉 미치지 않았음을 여러 번 강조하려면 다음과 같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TT1에서는 ‘난 분명 미친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주 분명히) 아니다’, TT2에서는 ‘난 (절대) 미치지도 않았고 (진짜) 분명히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 TT3에서는

‘난 미친 것도 (절대) 아니고 망상에 빠진 것도 (진짜) 절대 아니다.’

(예 2)와 (예 3)은 ‘From my infancy’와 ‘this’가 각각 문두에 나오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은 변하지 않는 전치문이다. (예 4)는 ‘neither by day nor by night’가 문두에 나오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문이다. 다음의 예는 (예 1)과 달리 전치문과 도치문의 측면에서 번역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예 2)

ST: From my infancy I was noted for the docility and humanity of my disposition. (“The Black Cat”)

TT1: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격이 온순하고 사려 깊다고들 했다.

TT2: 나는 어려서부터 성미가 유순하고 인정이 많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TT3: 유년 시절부터 나는 순하고 인정 많기로 유명했다.

(예 3)

ST: this I thought, and this I think. (“The Tell-tale Heart”)

TT1: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TT2: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TT3: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4)

ST: neither by day nor by night knew I the blessing of Rest any more!  
 (“The Black Cat”)

TT1: 나는 더 이상 낮에도 밤에도 휴식이라는 축복을 알지 못했다!

TT2: 이제 낮이나 밤이나 안식이라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TT3: 밤이고 낮이고 내겐 더 이상 휴식의 축복이라고는 없었다!

위의 세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T마다 번역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ST에서 논리적 전개를 위해 또는 강조를 위해 문두에 나온 어휘가 TT1과 TT2에서는 주어 다음에 위치해 있다. 반면 TT3은 이 어휘들을 문두에 두어 아이러니 단서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예 5)의 ①과 ②의 경우, 간결한 병렬구조로 되어있는 전치 구문이다. ‘object’와 ‘passion’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첫머리에 놓았다. 포는 “효과를 중시하고 문학적 가치도 효과에 있다고 생각”(장갑상 1984: 45)하며,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 평이 간결한 문체를”(59) 활용하기도 한다. 포의 간결한 문체는 (예 5)에 잘 나타나 있다.

(예 5)

ST: ① Object there was none. ② Passion there was none. I loved the old man. He had never wronged me. He had never given me insult. (“The Tell-tale Heart”)

TT1: 그 행위엔 아무런 목적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사랑했고, 그분이 제게 잘못된 적도 전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저를 모욕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TT2: 거기에 목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열정도 없었다. 나는 그 노인을 아주 좋아했다. Ø 그가 나를 모욕한 적도 없었다.

TT3: 목적은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난 그 노인을 좋아했거든요. 나한테 잘못된 게 없었어요. 모욕을 준 일도 전혀 없고.

(예 5)의 TT1 ‘그 행위엔 아무런 목적도 열정도 없었습니다’는 ST의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목적’이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전치 구문도 아니다. TT2 ‘거기에 목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열정도 없었다’는 병렬 구문이지만, ‘거기에’를 맨 앞에 놓아 ‘목적’이 전치되지 못했다. TT3 ‘목적은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는 전치 구문의 성격이 잘 반영되었다. 따라서 TT2는 병렬구조라는 측면에서 TT3은 전치 구문이라는 측면에서 ST와 해석적으로 닮았다고 볼 수 있다.

### 4.3 원서법과 곡언법의 번역

원서법과 곡언법은 중요한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완화해서 말하는 아이러니 수사법이다. (예 1)의 ① ‘the most wild, yet most homely narrative’에서 원서법이 나타나 있다. TT1은 ‘너무나도 괴이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TT2는 ‘가장 난폭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 TT3은 ‘완전히 미친 소리 같지만 가정사에 불과한 이야기’로 각각 번역되어 있다. TT1의 번역이 대조라는 측면에서 또한 최상급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대조가 크면 클수록 아이러니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문상

특 역 1980: 56).

(예 6)은 “The Black Cat”에서 사용된 곡언법이다. 아내가 미신을 많이 믿었음에도 부정어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not a little’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번역을 살펴보면 TT1은 ‘은근히’, TT2는 ‘적잖이’, TT3는 ‘적지 않게’로 번역하였다. 부정어를 사용하여 완곡해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은근히’보다는 ‘적잖이’나 ‘적지 않게’가 ‘not a little’과 해석적으로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예 6)

In speaking of intelligence, my wife, who at heart was not a little tinctured with superstition, made frequent allusion to the ancient popular notion, which regarded all black cats as witches in disguise. Not that she was ever *serious* upon this point — and I mention the matter at all for no better reason than that it happens, just now, to be remembered. (“The Black Cat”)

TT1: 녀석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 은근히 미신을 믿어 왔던 아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는 예부터 내려오던 미신 이야기를 던지시 꺼내곤 했다. 물론 아내가 그 미신을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었고,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지금 우연히 그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TT2: 내심으로 미신을 적잖이 신봉하던 아내는 고양이가 영특하다고 말하면서 특하면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변장한 것이라고 항간에 또는 전설을 언급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그 점에 대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마침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TT3: 녀석의 총명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신에 적지 않게 물들어 왔던 아내는 검은 고양이는 다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는 옛 통설을 종종 던지시 들먹이곤 했다. 아내가 그걸 심각하게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그런 기억이 떠오르기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예 6)에서 사용된 다른 곡언법은 ‘no better reason’이다. TT1과 TT3은 각각 ‘... 하는 이유는... 이다’, ‘...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TT2는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로 부정어를 살려 완곡하게 번역하였다. 이러한 곡언법은 아이러니한 효과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예 7)은 “The Tell-tale Heart”에 나타난 곡언법의 또 다른 예이다. 이 구문은 도치문이기도 하다. ‘Never’을 앞으로 도치하여 그날 밤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현명함을 느낀 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 7)

ST: Never before that night, had I *felt* the extent of my own powers — of my sagacity. (“The Tell-tale Heart”)

TT1: 사실 제가 제 정신의 능력이 그렇게 막강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그날 밤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실감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TT2: 나 자신의 총명함을 똑똑히 깨달았던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TT3: 그날 밤 이전에는 내 힘과 내 머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실감을 못 했어요.

(예 7)의 TT2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깨달았던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로 직설적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TT1은 ‘실감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TT3은 ‘실감을 못 했어요’로 곡언법을 잘 살렸다. 특히 TT3은 도치구문이라는 점을 살려 ‘그날 밤 이전에는’을 문장 앞에 배치하였고, 이탤릭체인 *felt*를 고딕체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의 단서를 하나하나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서는 이탤릭체, 느낌표 등 구두점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 4.4 반복법과 구두점의 번역

(예 8)은 집안을 수색하는 경찰관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나’는 죄가 탄로 나지 않은 것을 기뻐하며 경찰관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this — this’는 ‘나’가 흥분하여 말을 더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반복법을 통해 강조하는 효과와 동시에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

(예 8)

ST: “This — this is a very well constructed house.” [In the rabid desire to say something easily, I scarcely knew what I uttered at all.] — “I may say an *excellently* well constructed house. These walls — are you going,

gentlemen? — these walls are solidly put together,” (“The Black Cat”)

TT1: “이 집, 이 집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아주 탁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지요. 이 벽들 — 가시려고요, 여러분? — 이 벽들은 아주 단단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TT2: “우리 집은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무언가 거침없이 말하고 싶은 광적인 욕망으로 인해 나는 사실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몰랐다.) 특별히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벽은 말이죠. 아니, 여러분 그만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벽은 아주 견고하게 쌓였습니다.”

TT3: “이 집 말입니다. 참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절주절 말하고 싶은 광기에 사로잡혀 나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탁월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까요. 이 벽 말입니다. 가시려고요? 이 벽 참 잘 쌓지 않았습니까?”

(예 8)의 반복법 번역 양상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첫 단어 ‘this — this’ 부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TT1은 ‘이 집, 이 집은’으로 반복법을 살렸다. 말을 버벅거림으로써 ‘나’의 흥분상태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TT2와 TT3에서 사라진다. TT2 ‘우리 집은’과 TT3 ‘이 집 말입니다.’는 흥분상태타기보다는 평온한 상태로 보인다. ‘나’는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말하다가 아내의 시신을 넣은 벽을 지팡이로 치게 되고 결국 붙잡히게 된다. 이탤릭체인 excellently는 TT1과 TT3에서 고딕체로 반영이 되었다. TT2는 원본에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탤릭체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겠다고 책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으나 정작 굵은 글씨는 한 군데 이외에는 없다.

(예 9)는 연속적인 문장에서 앞 단어를 반복하는 첩어법(epizeuxis)에 해당한다. slowly를 반복하면서도 very를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다. 첩어법은 대시나 괄호와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대시나 괄호는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중요한 어휘를 강조하는 이중 효과”가 난다(Stauffer 1996: 463). 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불안감을 늘이고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464).

(예 9)

ST: ‘I moved it slowly — very, very slowly’ (“The Tell-tale Heart”)

TT1: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머리를 움직였으니까요.

TT2: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TT3: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대시를 활용한 첩어법의 번역 양상은 세 종류의 TT에서 유사하다. 한국어 특성상 대시는 생략하고 대신 쉼표를 사용했다. 하지만 반복적 표현 ‘very’의 번역은 생략되었다. 반복적인 표현을 살려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감정적인 표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치문과 도치문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온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즉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전개와 비이성적인 행동과 강렬한 감정을 통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예 9)와 달리 (예 10)은 번역 양상이 다르다.

(예 10)

ST: for what had I *now* to fear? ...

for *what* had I to fear? (“The Tell-tale Heart”)

TT1: 그 순간 제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던 말입니까? ...

제가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던 말입니까?

TT2: 이제 무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TT3: 이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10) ST의 두 문장은 반복과 차이, 강조가 드러난다. ‘for what had I to fear?’는 같지만, 첫째 문장은 ‘now’가 이탤릭체로 강조되었고, 두 번째 문장은 ‘what’이 이탤릭체로 강조되었다. TT1과 TT2는 반복과 차이, 강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TT1은 ‘for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을 ‘뭘... 필요가’, ‘무슨... 이유가’로 번역하였다. 또한 첫 번째 문장은 ‘그 순간’을 고딕체로 강조하였지만 두 번째 문장은 강조가 생략되었다. TT2는 “for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얼... 필요가’, ‘두려울 게 뭐가’로 번역하였고 강조는 모두 생략되었다. TT3은 ‘이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과 차이, 강조가 잘 드러난다. 한국어에서는 이탤릭체를 잘 사용하지 않은 특

성상 이탤릭체 대신 고딕체로 강조하였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의 “The Black Cat”과 “The Tell-tale Heart”에 나타난 아이러니가 번역텍스트의 아이러니와 해석적으로 닮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이러니 단서 즉 전치와 도치, 완서법과 곡언법, 반복법과 구두점을 분석했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아이러니 단서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러 형태의 약한 함축이 하나하나 모여 아이러니 효과를 낳게 된다. 아이러니의 형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번역본에 이러한 단서를 빈번하게 놓치면 목표독자는 아이러니 효과를 더욱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번역본에서 아이러니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는 이러한 단서를 충분히 번역했는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T1은 아이러니 단서를 살리기 보다는 좀 더 문학적인 표현에 치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TT3은 다른 번역본보다는 비교적 아이러니 단서를 좀 더 많이 반영했다. 따라서 TT3은 ST와 가장 해석적으로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전치와 도치는 서술자의 논리성과 이성을 표현하는 데에 기여하며 반복법과 구두점은 흥분상태와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기여했다. 완서법과 곡언법은 중요한 사건을 별일 아닌 듯이 표현하여 아이러니를 강화했다. 전치문 보다는 도치문이 번역본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처럼 형용사를 도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도치문은 강조의 기능이 있으므로, 형용사를 문두에 놓는 것 대신 부사를 넣어 번역하는 방안도 있다. 반복법 중에서 특히 ‘very, very’의 형태가 여러 차례 나오지만, 번역본에서는 모두 ‘매우, 매우’ 또는 ‘아주, 아주’의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는 없었다. 과장된 표현 보다는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규범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정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곡언법의 경우, 번역본에서는 대체로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원문과 해석적으로 닮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단서를 다른 형태로라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문학텍스트에서 약한 함축을 이루는 아이

러니 문체는 이러한 의사소통적 단서가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한 이야기의 의사소통 단서 즉 전치문과 도치문, 반복법과 과도한 구두점, 완서법과 곡언법의 번역은 아이러니를 번역하는 기초가 된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이러니 단서라는 미시적 관점에서만 텍스트 분석을 했다는 것이다. 문학번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판과정이나 번역가의 창의적인 해석 등도 언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아이러니를 언어적 아이러니(반어법) 이외에 여러 형태의 아이러니 단서를 함께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태훈, 최희섭 (2018) 「오만과 편견의 언어적 아이러니 번역 고찰」, 『동화와 번역』 36: 35-57.
- 박원경 (2003) 「전치문과 도치문의 담화화용론적인 비교」, 『영어학』 3(1): 37-54.
- 이종오 (2014) 「아이러니」. 김희영, 고광식, 김계영, 김용석, 김중현, 류은영, 문재은, 박우수, 박치완, 원종익, 이종오, 임경순 (2014) 『문체론 용어사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장갑상 (1983) 「Poe 소설의 특징」, 『영어영문학』 29(4): 787-804.
- 장갑상 (1984) 『에드거 앨런 포의 문학』, 서울: 서린.
- 한미애 (2015) 「채만식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 양상: <치숙>과 <<태평천하>>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5): 183-211.
- Baañ, Oana (2015) 'Variables as Contextual Constraints in Translating Irony', *Linguaculture* 1: 98-123.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akhachiro, Raymond (2011) *Translating Iron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th English and Arabic as a Case in Point*, London: Sayyab Books.
- Ghazala, Hasan (2007) 'Touching upon the Translation of the Style of Irony',

- Babel* 53(1): 22-31.
- Gooder, R. D. (1987) 'Edgar Allan Poe: The Meaning of Style', *The Cambridge Quarterly* 16(2): 110-123.
- Gutt, Ernst-August (1998) 'Pragma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eo Heckey (ed.)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t. Jerome.
- Hassan, Bahaa-eddin A. (2011) *Literary Translation: Aspects of Pragmatic Meaning*,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Kim, Yong Soon (1990) 'A Study on the Criticism of Poe's Narrators', 『진주 여자전문대학논문집』 13: 575-587.
- Linder, Daniel (2001) 'Translating Irony in Popular Fiction: Raymond Chandler's *The Big Sleep*', *Babel* 47(2): 97-108.
- Moneva, Ma Ángeles (2001) 'Searching for Some Relevance Answers to the Problems Raised by the Translation of Irony', *Alicante Journal of English Studies* 14: 213-247.
- Muecke, D. Colin (1970) *Irony*, London: Methuen (문상득 역 (1985) 『아이러니』, 서울: 서울대학교).
- Shen, Dan and Kairui Fang (2019) 'Stylistics', in Kelly Washbourne and Ben Van Wyke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25-337.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 Stauffer, Donald Barlow (1996)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Prose', in Eric W. Carlson (ed.), *A Companion to Poe Studies*, 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 Zimmerman, Bret (2005) *Edgar Allan Poe: Rhetoric and Style*, Montreal: McGill-Queen's UP.

<인터넷 자료>

*Literary Device*. Available at <https://7esl.com/meiosis/>

<분석 텍스트>

권진아 옮김 (2018) 『에드거 앨런 포 전집 1』, 서울: 시공사.

김정민 옮김 (2015) 『포 단편집』,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전승희 옮김 (2013)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서울: 민음사.

Edgar Allan Poe Society of Baltimore. Available at <https://www.eapoe.org/index.htm>.

[부록 1]

### “The Black Cat”과 「검은 고양이」의 전치문

To me, they have presented little but Horror

TT1: 내게 그 사건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TT2: 그 사건이 나에게 공포 이외에 아무것도 안겨주지 않았지만,

TT3: 그 사건들은 내게는 오로지 공포 그 자체였지만

With these I spent most of my time

TT1: 나는 대부분 애완동물들과 시간을 보냈다

TT2: 난 내게 이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TT3: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애완동물들과 함께 보냈으며,

in my manhood, I derived from it one of my principal sources of pleasure. TT1: 이런

성격은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된 뒤까지도 유지되었다.

TT2: 어른이 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TT3: 어른이 되었을 때 그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이 되었다.

To those who have cherished an affection for a faithful and sagacious dog, I need hardly be at the trouble of explaining

TT1: 충성심과 충기가 넘치는 개의 주인으로서 그 개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TT2: 충직하고 영특한 개에게 애정을 느껴 본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TT3: 충성스럽고 충명한 개에게 애정을 품어본 본 사람들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intemperate language to my wife. At length, I even offered her personal violence.

TT1: 서슴지 않았고, 종국에는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TT2: 폭언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TT3: 지경이 되었고, 결국에는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



One night, returning home, much intoxicated, from one of my haunts about town,

TT1: 어느 날 밤 늘 가던 시내 술집 중 한 곳에서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TT2: 어느 날 밤, 단골로 다니던 시내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콘드레만드레가 되어 집에 왔는데

TT3: 시내 단골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온 어느 날 밤,

In the meantime the cat slowly recovered.

TT1: 그사이 고양이는 상처를 서서히 회복했다.

TT2: 한편 고양이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TT3: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서서히 회복됐다.

Of this spirit philosophy takes no account.

TT1: 이 도착적인 심리에 대해 철학은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

TT2: 이러한 감정은 철학적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TT3: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One morning, in cool blood, I slipped a noose about its neck

TT1: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나는 너무나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 녀석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다음

TT2: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자약하게 고양이 목에 올가미를 걸고는

TT3: 어느 날 아침 나는 비정하게 녀석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On the night of the day on which this cruel deed was done, I was aroused

TT1: 그런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TT2: 이처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날 밤에 나는 잠을... 깼다.

TT3: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On the day succeeding the fire, I visited the ruins.

TT1: 그 화재 다음날 나는 폐허가 된 집터를 찾아갔다.

TT2: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화재 현장에 가 보았다.

TT3: 불이 난 다음날 난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갔다.

About this wall a dense crowd were collected,

TT1: 벽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TT2: 그 벽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TT3: 이 벽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고,

But at length reflection came to my aid.

TT1: 그러나 좀 더 곰곰 생각해 본 뒤 나는 결국 그 같은 경악과 공포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TT2: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고 나서야 평정을 되찾았다.  
TT3: 하지만 생각을 더듬어보며 겨우 정신을 수습했다.

Upon the alarm of fire, this garden had been immediately filled by the crowd

TT1: 화재 경보가 울리자 정원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었으니까,  
TT2: ‘불이야’ 하는 소리에 이 정원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TT3: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이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For months I could not rid myself of the phantasm of the cat;

TT1: 그 후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이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TT2: 그 뒤 여러 달 동안 나는 그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TT3: 몇 달이 지나도록 나는 그 고양이의 망령을 마음속에서 떨칠 수가 없었고,

during this period, there came back into my spirit a half-sentiment that seemed,

TT1: 그러는 동안… 반쯤은 회한을 닮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TT2: 그동안에… 회한과 비슷한 묘한 감정이 다시 일어났다.  
TT3: 그런 즈음… 애매모호한 심정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One night as I sat, half stupified,

TT1: 어느 날 밤 내가 반쯤 멍한 상태로… 있을 때였는데,  
TT2: 어느 날 밤… 다소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TT3: 어느 날 밤… 인사불성 상태로 앉아 있던 내 눈에

For my own part, I soon found a dislike to it arising within me.

TT1: 하지만 내 경우엔 이내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내부에서 용솨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TT2: 그러나 나는 얼마 안 가서 그 고양이를 싫어하게 되었다.

TT3: 그와 달리 나는 곧 녀석이 싫어졌다.

With my aversion to this cat, however, its partiality for myself seemed to increase.

TT1: 그런데 내가 그 녀석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고양이란 녀석은 나를 더욱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았다.

TT2: 그러나 고양이는 내 혐오감이 커져 갈수록 오히려 나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TT3: 하지만 그 고양이에 대한 내 반감이 커질수록 나에게 대한 녀석의 애정도 더 커져가는 것 같았다.

At such times, although I longed to destroy it with a blow, I

TT1: 그럴 때 나는 주먹질로 그 짐승을 작살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TT2: 그럴 때마다 나는 녀석을 한 방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TT3: 그럴 때면 단박에 죽여버리고 싶었으나

for this, above all, I loathed,

TT1: 무엇보다도 바로 그 형태 때문에 나는 그 짐승을 더욱더 혐오하고

TT2: 이로 인해 나는 무엇보다도 그 고양이가 미웠고,

TT3: 그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그 괴물이 진저리치게 싫고,

During the former the creature left me no moment alone;

TT1: 낮 동안에는 그 짐승이 나를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TT2: 낮 동안에 이 녀석은 나를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고,

TT3: 낮에는 놈이 나를 한시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고,

in the latter, I started, hourly, from dreams of unutterable fear,

TT1: 밤에는 매시간 형용할 길 없이 무시무시한 꿈에서 놀라 깨어나 보면,

TT2: 밤에는 시시각각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꿈에 가위눌려 깨게 되면

TT3: 밤에는 매시간 말할 수 없는 악몽에서 소스라치며 깨어날 때마다

Beneath the pressure of torments such as these, the feeble remnant of the good within me succumbed.

TT1: 이 같은 격통의 무게로 인해 내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던 선한 마음이 항복을

선언했다.

TT2: 이와 같은 고통에 짓눌려 희미하게 남아 있던 내 마음속의 선이 그만 행복하고 말았다.

TT3: 이런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 내 안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선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One day she accompanied me, upon some household errand, into the cellar of the old building which our poverty compelled us to inhabit.

TT1: 빈곤해진 형편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낡은 건물에 살림을 내어 지내던 어느 날,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아내와 내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TT2: 어느 날 아내와 난 가난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낡은 집의 지하실까지 불일이 있어 나를 따라 들어왔다.

TT3: 어느 날 아내와 난 가난에 내몰려 살게 된 낡은 건물의 지하실에 불일이 있어 함께 내려갔다.

At one period I thought of cutting the corpse into minute fragments,

TT1: 잠시 동안은 시체를 아주 잘게 토막내

TT2: 시체를 잘게 토막 내 불에 태워 없애 버릴까 생각도 했고,

TT3: 시체를 잘게 토막 내 불에 태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At another, I resolved to dig a grave for it in the floor of the cellar.

TT1: 이어서 지하실 바닥에 무덤을 파서 묻어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TT2: 지하실 바닥을 파서 매장할 생각도 했다.

TT3: 또 지하실 바닥에 무덤을 파서 묻어야겠다는 결심도 했다.

For a purpose such as this the cellar was adapted.

TT1: 지하실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TT2: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지하실은 안성맞춤이었다.

TT3: 이런 목적에 그 지하실은 완전히 안성맞춤이었다.

And in this calculation I was not deceived.

TT1: 계산은 딱 맞아 떨어졌다.

TT2: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TT3: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By means of a crow-bar I easily dislodged the bricks,

TT1: 쇠지레를 사용했더니 벽돌들이 쉽게 빠져 나왔고,

TT2: 지렛대를 이용해서 쉽사리 벽돌을 떼어 낼 수 있었고,

TT3: 나는 지렛대로 벽돌들을 쉽사리 들어내고

with this I very carefully went over the new brick-work.

TT1: 새로 쌓은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밟았다.

TT2: 새로 쌓은 벽돌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밟았다.

TT3: 이걸로 새로 쌓은 벽돌 위를 정성스럽게 밟았다.

Once again I breathed as a freeman.

TT1: 다시 한 번 해방된 인간이 되어 숨을 쉴 수 있었다.

TT2: 다시 한번 나는 자유인으로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TT3: 다시 한 번 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Upon the fourth day of the assassination, a party of the police came,

TT1: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관 몇 명이... 들이닥쳐,

TT2: 살인을 저지른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관 일행이 집에 들이닥쳐서,

TT3: 살인을 저지른 지 나흘째 되는 날, 한 무리의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At length, for the third or fourth time, they descended into the cellar.

TT1: 지하실에도 서너 번 내려갔다.

TT2: 적어도 세 번인가 네 번 지하실로 내려갔다.

TT3: 마침내 그들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through the mere phrenzy of bravado, I rapped heavily,

TT1: 나는 순수한 과시욕에 사로잡혀... 탕탕 두들겼다.

TT2: 나는 그저 허세를 부리고 싶은 격한 심정에서... 힘껏 내리쳤다.

TT3: 나는 한낱 허세에 눈이 멀어 힘껏... 두드렸다.

Of my own thoughts it is folly to speak.

TT1: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리라.

TT2: 그 순간의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리라.

TT3: 그때 내 생각이 어땠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For one instant the party upon the stairs remained motionless,

TT1: 계단에 서 있던 경찰관들은... 순간 멈췄다.

TT2: 계단 위를 오르던 경찰들은 한순간... 우두커니 서 있었다.

TT3: 계단 위의 경찰들은 일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부록 2]

### “The Black Cat”과 「검은 고양이」의 도치문

And then came, as if to my final and irrevocable overthrow, the spirit of PERVERSENESS.

TT1: 그리고 나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에 결정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이기라도 하듯 도 착적인 심리가 나를 찾아왔다.

TT2: 마침내 결정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게 나를 전복시키려는 듯이 심술궂은 성미가 나를 덮쳤다.

TT3: 그러더니 마치 돌이킬 수 없이 나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듯이 심술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now was I indeed wretched beyond the wretchedness of mere Humanity.

TT1: 그 비참함은 인간적 비참함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TT2: 이제 나는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한계를 넘어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TT3: 정말이지 내가 느끼는 불행은 단지 인간의 불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Moreover, in one of the walls was a projection,

TT1: 더욱이 한쪽 벽에...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TT2: 게다가 한쪽 벽에는 걸보기에... 돌출되어 있었는데

TT3: 게다가 한쪽 벽에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No sooner had the reverberation of my blows sunk into silence, than

TT1: 내가 두들기는 소리에 대한 반향이 고요 속으로 잦아 들자마자

TT2: 내가 때린 소리의 반향이 잠잠해지자마자

TT3: 지팡이 소리의 반향이 사라지자마자

Upon its head, with red extended mouth and solitary eye of fire, sat the hideous beast

TT1: 시체의 머리 위에는 붉은 입을 활짝 벌리고...그 가증스러운 짐승이 앉아 있었다.

TT2: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끔찍한 동물이 앉아 있었다.

TT3: 그 머리 위에 그놈,... 그 끔찍한 짐승이 시뻘건 입을 짝 벌린 채 외눈을 이글거리며 앉아 있었다.

[Abstract]

**Translation of Ironic Clues  
in “The Black Cat” and “The Tell-tale Heart”**

Miae Han

(Dongguk University,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ronic clues in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The Black Cat” and “The Tell-tale Heart” by Edgar Allan Poe. Irony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meanings of what is said and what is intended are contrasted. The ironic clues in the two works include fronting, inversion, meiosis, litotes, repetition and punctuation. Fronting and inversion contribute to the expression of the narrator’s logic and reason, and repetition and punctuation contribute to the expression of excitement and intense emotions. Meiosis and litotes reinforce ironic effect by expressing important events as if they were nothing. Inversion rather than fronting is not reflected well in the translations, because, due to the nature of Korean, an adjective can not be inverted like in English. Since the inverted sentence has a function of emphasis, there is a way to translate it into an adverb. Although the repetitive forms of ‘very, very’ appear several times in STs, none of them are translated in three kinds of TTs. It appears that more natural or normative expressions are preferred rather than exaggerated expressions. In order to interpretively resemble the original text, it is appropriate to sufficiently reflect each of these communicative clues in translated texts. This is because these communicative clues, or ironic clues, produce ironic effect in the literary texts.



Keywords: fronting and inversion, ironic rhetoric, interpretative resemblance, relevance, literary translation

주제어: 전치와 도치, 아이러니의 수사법, 해석적 닮음, 관련성, 문학번역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강사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교육

논문투고: 2022년 8월 2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9일